



네덜란드 파빌리온 라다 드수자·요나스 스탈 작품.

# 세계의 이슈들, 광주비엔날레에서 만난다

비엔날레재단 '파빌리온 프로젝트'  
네덜란드·이스라엘 등 9개국 참여  
기후·전통·소수민족문화 작품으로

자연과 인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캐나다 이누이트족의 예술, 우크라이나의 자유.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예술로 풀어낸 다양한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열리는 본 전시와 함께 광주 곳곳의 예술공간에서 관람객을 만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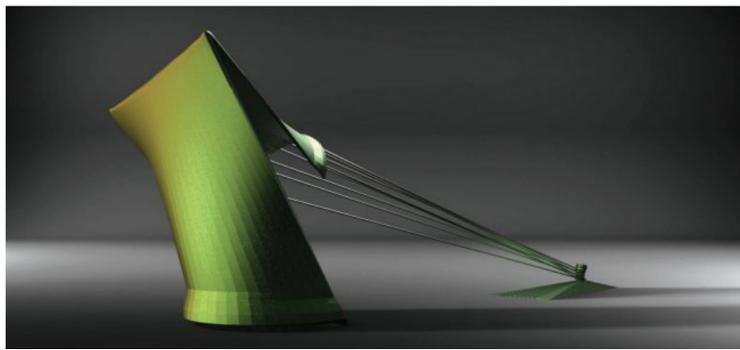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1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시 주제, 참여 작가, 큐레이터 등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미술축제 베니스비엔날레가 운영하는 국가관처럼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기관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자국의 큐레이터, 예술가 등과 함께 전시를 꾸리는 기획으로, 광주의 다양한 예술공간과 지역 큐레이터 등이 협업을 진행한다. 첫째였던 지난 2018년에는 필리핀 등 3개 국가가, 2021년에는 스위스와 대만 2개국이 참여했다.

올해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개국이 참여하며 지역 협력기관으로는 광주시립미술관, 이이남 스튜디오 등이 함께 한다.

각 국가별 파빌리온은 동시대 화두인 기후 문제와 자국 전통, 소수민족 문화 등을 아우르면서 본 전시와 호응하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네덜란드(광주시립미술관)는 '세대 간 기후범위 재판소(CICC): 멸종 전쟁'을 주제로 기후 범죄와 관련, 군사 산업 단지를 고발한다. 석유 배럴, 철조망, 모래주머니 등으로 이루어진 군사전선과 멸종 동물의 이미지를 융합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전시장을 가상 법정으로 변신시켜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부와 기업을 재판에 회부하는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중국 파빌리온의 장 티안이 작품.

'공간 퍼포먼스'도 세 차례 진행한다.

스위스(이이남 스튜디오)의 'Spaceless'는 스위스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진작가 8명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작가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 건축물과 가상의 공동체와 풍경을 포착해 50점의 사진, 비디오, 설치미술로 선보인다.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 광주비엔날레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기획이다.

이탈리아(동국미술관)는 '잠이 든 물은 무엇을 꿈꾸는가'를 주제로 카밀라 알베르티 등 5명의 작가가 물의 은유를 통해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관계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공존을 제시한다. 영상, 사운드,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화,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캐나다 파빌리온(이강하미술관)은 캐나다 이누이트 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기획으로 국내에서 최초·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누이트 미술전이다. 키키키트 소속 28명 작가들이 작업한 90점의 드로잉과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지원했다.

중국(은암미술관)은 중국국립미술관이 '죽의 심원(竹意心源: 뱀뱌로 보는 마음의 공간)'을 주제

로 파빌리온을 운영한다. 중국 문명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대나무를 소재로 한 이번 전시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대나무의 관계를 강조하며 조각과 이미지 아트에 중점을 둔 몰입형 작품으로 구성됐다.

프랑스(양림미술관)파빌리온은 지난해 열린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알제리계 프랑스 작가 지네브 세디라의 작품을 선보인다. 자전적 내러티브와 허구,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한 그의 작품 '꿈은 제목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제적 연대를 조명한 작품으로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한국을 위해 맞춤형으로 재구성해 전시한다.

이스라엘(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은 '불규칙한 사물'을 주제로 새롭게 해석한 사물의 존재에 대해 탐구하며 폴란드(10년 후 그라운드, 갤러리 포도나무)는 '포스트 아티스틱 어셈블리'(Postartistic Assembly)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크라이나(국립아시아문화전당)는 '우크라이나: 자유의 영토'를 주제로 자유를 향한 여정을 담은 영화 세 편을 상영한다. 더불어 양림동의 갤러리 포도나무에서도 우크라이나 프리필름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시집만 판매하는 서점, 엄마의 밥상을 떠올리게 하는 가정식 서점, 일주일에 한권의 책만 파는 서점...

5년 전 광주일보에 연재했던 '도시의 아이 큰, 동네책방'에 소개된 서점들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색깔있는 책방을 취재하기 위해 7개월 동안 광주, 서울, 부산, 고산, 통영, 대전은 물론 멀리 런던, 리버풀, 도쿄까지 국내외 40여 곳의 책방을 답사했다.

동네의 한 귀퉁이에 자리한 서점들은 소박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했다. 대형 서점에선 보기 힘든 독특한 북큐레이션과 다양한 프로그램은 주인과 커뮤니티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수 십년간 책방을 꾸려온 주인장들의 열정은 감동 그 자체였다.

힘든 여건속에서도 행복한 표정을 짓는 '이성한 쌤방'에 놀랐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의 등장에도 이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동네서점' (구 피니플랜)이 발표한 '동네서점 트렌드 보고서' (2022년 기준)에 따르면 2021년에 비해 전국의 독립서점은 70곳 늘어난 815곳이었고, 서울 10곳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에서 3-5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동네서점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겉보기와 달리 여전히 적박하다. 인터넷·대형 서점 등에 맞서 '밥방' 이외에 1인 3역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공공도서관 등에서 동네책방의 책을 우선

## 동네책방이 세상을 바꾼다?!

그중에서도 지난 2014년 4월, 국내 최초의 '북스테이'를 내걸고 문을 연 충북 괴산의 '숲속작은책방'은 인상적이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요정이 살고 있는 듯한 원두막을 책방으로 꾸민 공간과 해먹이 설치된 야외책방은 흥미로웠다. 영국 '헤이 온 와이' 등 유럽의 책 마을에서 영감을 얻은 책방지기 부부가 1박 2일의 독서 체험 콘텐츠를 처음 선보인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동네서점의 고군분투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광주 출신 강말실 사계절 출판사 대표가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국의 동네서점을 응원하기 위해 순례에 나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동네책방'이 그 증거다. 강 대표는 책방지기들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만든 빵과 커피를 팔거나 외부 원고를 쓰는 등

적으로 구매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던 하지만 등록기준이나 구매방식이 저마다 달라 유명부실하다. 지난해 고작 1곳이 늘어난 광주 (18곳)의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제 동네책방은 더 이상 책을 파는 곳이 아니다. 지역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기 위해 작가와의 만남, 글쓰기, 예술 강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북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동네책방이 늘어날수록 도시의 문화지수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일 터. 동네책방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이유이기도 하다. '정열을 버리지 못하고 시작하게 된 작은 책방. 그런 서점이 전국에 1천 곳 생긴다면 세상은 바뀔 수도 있다.' (이시바시 다케후미의 '서점을 죽지 않는다' 중에서)

<문화·여행국장, 선임기자>

## '2023 제46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발간

"작품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설에서 그려 내는 집수리의 과정은 인간의 삶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소한 물건들에 얽힌 기억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기억들은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집이라는 장소가 지니는 고유한 공간성의 의미를 지워 버리지 않는다."

2023 제46회 이상문학상 본심 대상을 수상한 최진영 작가의 '홈 스위트 홈'에 대한 심사평 일부다. 작품은 '집'이라는 공간을 모티브로 공간과 시간의 연속성을 섬세한 문체로 형상화했다.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홈 스위트 홈'과 우수작이 수록된 '2023 제46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이 발간됐다.

수상집에는 최진영 작가의 자선 대표작 '유진'도 실렸다.

최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소설에 영향을 끼친 책과 기사와 영상이 있듯,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설을 발표하고 출간하기까지도 그렇습니



다"라며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몫의 일을 해내고 계산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상집에는 모두 5편의 우수작이 실려 있다. 우수작은 김기태 (세상 모든 바다), 박서련 (나, 나, 마들렌), 서성란 (내가 아직 조금 남아 있을 때), 이상욱 (크로잡), 최은미 (그곳)이다.

대상 수상자 최진영 작가는 2006년 '실천문학'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소설집 '팽이', '겨울방학'과 장편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끝나지 않는 노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등을 펴냈다. 한겨레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백신애문학상, 김용익소설문학상, 민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대의 지성' 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

책·사진·영상·등 온라인 공개  
25일~4월23일 국립중앙도서관

시대를 대표한 탁월한 지성이었던 고(故) 이어령(사진) 초대 문화부 장관의 1주기를 맞아 그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달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두 달간 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이 전 장관을 추모하는 특별전 '이어령의 서(序)'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부인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가 운영하는 영인문화학과 함께 기획했다. 시대의 지성이자 석학으로서, 우리 문화 정책을 기틀을 마련한 이 전 장관의 뜻을 기리는 자리다.

직접 쓴 육필원고 1점도 전시돼 고인이 작업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의 대표 저서로 꼽히는 '저항의 문학' (1959),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1963), '축소지향의 일본인' (1982), '공간의 기호학' (2000), '너 어디에서 왔니' (2020) 등 5권의 초판본도 선보인다.

전시장의 '이어령과 조우하다' 부분에서는 영상



을 통해 이 전 장관을 만날 수 있다. 88올림픽 개폐회식 기획·연출자, 교육자, 문화부장관 시절 모습은 물론 손자를 안고 있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인간 이어령'의 참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도서관은 이번 특별전 개막에 맞춰 이 전 장관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고인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책과 강연 자료, 육필 원고, 사진, 영상 등 총 1만789건 가운데 일부가 디지털화 작업을 마쳐 24일부터 누리집에서 서비스된다. 지난해 2월 26일 암 투병 중 별세했다.

/연합뉴스

## '학교 예술교육 관계자 만남'

서구문화원, 24일 DJ센터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광주지역 초·중·고 269개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 예술교육 관계자 만남'을 갖는다.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번 '학교 예술 교육 관계자 만남'은 2023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관련 사업 안내를 비롯해 운영 가이드, 기획, 부대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규과정 외에 학생들의 예술적인 꿈과 기회를 실현할 있도록 맞춤별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광주 서구문화원이 협력해 공교육 현장에 예술강사를 배치해 예술교육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문화원은 지난 15일에는 예술강사 대상 'NOW. ART BUS'를 진행해 260여명의 참여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서구문화원은 2024년까지 2년간 광주지역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270여개 운영학교와 연계해 260여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2023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공모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윤정모)는 '2023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3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 접수 (kjusj@naver.com)와 우편 접수.

올해 6번째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거점서점 문학프로그램을 통해 작은서점 활성화와 문학 향유권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문학작가를 비롯해 문학거점서점 17개소와 작은서점 40개소에 작가 인건비를 비롯해 공간 대관료,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문학거점서점에서 문학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상주 문학작가' 17명에게는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작은서점에서 활동할 파견 문학작가에게는 월 60만원(2회)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학거점서점과 작은서점에는 대관료 및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로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70-4800-1191-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